

제 목을 제일 먼저 뒤야  
하니 언제나 부지런히 뒤고 배  
워라. 그리고 남에게 널리 전  
하며 게으르지 않는 것이 어진 이니라.

(法古經-예선종 2월)

제 1103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 3호우편번호(71)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8월26일 (수요일)

[ 1 ]

## 총동창회비 부활에 대책위 구성

### 합의사항 파기-책임자 공개해명 요구

총동창회비가 지난 88년 학원자주회부영양식 학생총회 결의를 통해 납부중지된 이후 92학년도 2학기부터 다시 부활하게 될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총동창회비 부활과 관련 불교학과, 국민윤리학과, 무역학과 등 10여개학과는 지난 25일 '총동창회비 부활을 반대하는 학생총회'를 구성하고 이의결의 공개해명 및 책임자 처벌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당국에 의해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발부된 등록금고지서는 총동창회비 부활이 88년 정기학생총회 결정사항과 92년 1학기 등록금부담 합의를 무시한 채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24대 총학운영위는 지난 18일 총동창회비 납부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총동창회비의 납부거부, 총동창회비를 제외한 학생회비와 교지대의 별도 납부등을 기본원칙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총학은 지난 19일 대자보선전을 통해 증심적인 총

학운영위 결의와는 달리 총동창회도 학교발전의 이주제임을 촉구하고 등록금 전제로 '일단 총동창회비를 납부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게재해 운영위원회 결의의 파기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불교대, 문과대, 사범대 등 몇몇 단과대는 이번 총동창회비의 일방발부와 관련된 지난 15일을 전후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총동창회비의 납부거부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19일에는 총동창회비 부활에 원칙적으로 반대

하는 1백50여명의 학생들이 경리과(본관 3층)를 일사적으로 점거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총동창회비 부활을 항의하는 한편 납부거부와 총동창회비를 제외한 학생회비·교지대의 분리수납을 학교당국 측에 수용할 것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현재 10여개학과 대학위는 공동으로 이번 일의 실질적 책임자인 학교당국의 총장, 조병찬 전 학생처장, 유주영 총동창회 수석부회장등의 처벌 및 공개적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총학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도서관에서 집회를 열고 기간 경과보고를 통해 이후 △총동창회와 학교당국측의 공개사과·총동창회 항의전화 전개

△92년 1학기 등록금 부담 합의를 파기하는 전이행 스티미 수납된 총동창회비의 환불부담 내용의 파기 토론 전개 및 항의의 시한 전담등을 결의했다.

이때 10여개학과 대학위는 "총학이 환불조치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뿐더러 88년 학자주회 합의사항을 무시한 행위를 묵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오는 27일 도서관에서 총동창회비부담 환불을 분배결의의 대회를 상정해 20여개학과 대학위를 공적 구성한 후 학내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총동창회비의 부활 저지 선전전동을 벌일 예정이다.

(취재부)

## 신입생 1백20명 증원

학과신설-정보관리·전산통계학과

93학년도 본교 신입생정원이 2개학과 70명 신설과 전기전자·화학공학계열의 정원을 증원으로 총 1백20명이 증원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산업체 고급인력 수급을 위한 첨단 이공계열학과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산업인력양성수정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교의 경우 서울캠퍼스 정보

관리학과 야간 30명, 경주캠퍼스 전산통계학과 40명이 신설, 증원됐다.

또한 정원증원에 따라 서울 캠퍼스의 전기전자계열 30명, 화학공학계열 20명이 증원됐으며 경주캠퍼스 정보관리학과는 정보산업학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대학원 정원도 1백명 증원됐다. 이를 각 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석사과정 30명 △대학원 박사과정 10명 △산업기술대학원 30명 △정보산업대학원 15명 △지역개발대학원 15명이다. 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됐다.

##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교수회장 이순용 교수

교수는 1학기 정기총회를 지난 18일 92학년도 서울·경주 합동으로 엠버서더호텔 대회의실에서 열고 세일원전을 선출했다.

신임 교수회장은 총투표인원 1백62명의 과반수이상인 84표를 얻은 이순용(법학)교수가, 부회장은 투표인원 89명중 40표를 얻은 염준근(통계학)교수가 각각 당선됐다. 감사는 김주환(지구교육)교수가 연임하게 되었다.

## 교수동정

▲송석구(철학)=독일 케임브리지대학 제13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퇴계의 인성론과 유교의 인성론 비교'란 주제논문 발표자.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체류.

▲김경태(농학)=지난 7월14일 농림수산부 중요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임.

▲김강구(토목공학)=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심포지엄에 '부산의 그루번의 토지개발의 현상과 급속의 과제'란 주제발표자 참석.

▲김창수(역사교육)='근대 일본의 한국침략과 한·일간의 제조업'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한국침략문제 한일학회에 참석. 지난 7월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방문.

▲정명호(미술학)='한국 불교조형미술의 전통 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제6차 국제미술학술회의의 참석. 지난 7월12일부터 8월17일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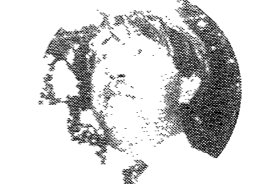
(중국 북경대 주최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회의')

▲오영근(불교학)='신라불교의 국토관 화상사상' 주제발표.

▲임기국(중문학)='연행록의 대외의사과 대조선의식' 주제발표.

▲박영진(법학)='남북경제 교류와 상사중재' 주제발표.

▲주중환(농업경제학)='토지소유와 자본의 논리' 주제발표 참석.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체류.



본사 15대 편집인 겸 주간인 차수련 교수

본사 15대 편집인 겸 주간인 차수련(경영학)교수가 지난 10일자로 부임했다.

신임 차수련은 68년 본교경영학과를 졸업, 85년 독일 마르부르크대 경영학(마케팅)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본교에는 86년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 경영대학원 교학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본교 하와이대학과 자매결연 국제교류 협력의 활성화 기대

민청총장은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미국자매 대학을 순방하면서 하와이 대학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다 자매결연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이의 실행방향을 모색했다.

이번에 체결된 하와이 대학과의 교류, 학생, 문헌정보의 상호교류와 연례 국제불교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본교의 불교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로써 본교의 해외자매 대학은 5개국 14개교로 확대됐다.

이외에 LA소재 캘리포니아 대학(UCLA)은 자매결연 유호 기간을 연장하고 연구, 학생, 문헌의 상호교류 및 연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이 에워하는 사람에 따라 예리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우둔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 도리를 말에 비유하여 준비는 마부가 꼭 하고 드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마부의 뜻을 헤아려 달려가지만 채찍이 떨어야만 달리는 말, 마침내 배까지 아픔을 가해야만 달리는 말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각각각색의 존재노릇이 있기 마련이다. 그 노릇은 자기 분수나 역할을 망각하고 주체에게 행동할 수 없다. 근기에 차등이 있기에 그 근기따라 공부해 가는 방법을 여러 방편으로 보고 있고 있는 미로 범인이 본교의 특수성이다.

崔玄覺

## 일부 보직인사개편 단행 불대학장에 이영자 교수

학교당국은 지난 1일자로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장을 유광진(정치외교학)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 보직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이전에 개편된 보직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학장=이영자(불교학) △기획조정실장=유광진(정치외교학) △교무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 △학생처장=최순열(국어교육) △총무처장=허천택(영문학) △관리처장=민대진(화학) △교무처 학술부장=홍영식(컴퓨터공학) △전산계산실장=이금식(컴퓨터공학) △생활복지연구소장=유주영(식품공학) △학생생활 연구소장=김주환(지구교육) △산업기술대학원 교학부장=이진구(전자공학) △동대신문 연구과정 6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명, 연구·관리과정 14명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 9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박사 31명, 석사 1백78명

9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오는 28일 오전11시 중앙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삼거리에서 시작하여 학사보고, 학위수여, 졸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 및 경주캠퍼스 박사 31명, 석사 1백78명, 연구·관리과정 14명, 석사 1백78명 등 총 5백71명의 졸업생을 각 대학원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박사 포함 6명)

먼저 △대학원 박사 31명, 석사 54명 △불교대학원 연구·관리과정 7명 △행정대학원 석사 42명, 관리과정 54명 △경영대학원 석사 26명, 관리과정 51명 △교육대학원 석사 44명, 연구과정 6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명, 연구·관리과정 14명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 본사사령

△임수승(사령) △이성중(불교대 불교1) △이창현(공과대 기계공1) △백찬주(인문대 국문1) △전원철(법정대 야간 법1) △김선영(상경대 회계1) (이상 6월1일자)

## 보리수

현대인은 하루 생활을 하는 데도 필연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무수히 밀려오는 업무량 가운데 그때 그때 선별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마려오고 생각과 생각이 대립적으로 떠오르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무수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나름대로 선택이 되는 과정을 거쳐 답도도 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만남이나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고가 기준을 이루고 있기 마련이다. 수행자는 후 이런 과정없이 쉽게 정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수행은 큰 일 가운데 하나는 풀릴듯이 밀려

## 세존양구(世尊良久)

오는 번외 망상의 거센 파도를 잠재워 잔잔한 호수로 만들거나 오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일상사 가운데에도 여러 저러한 것들이 쉽게 넘겨 버릴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나름대로 선별, 선택하여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일이 어찌 세

이 갖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게 하였습니다.'하고 의도는 세존에게 경배드리고 돌아갔다.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아들은 스승에게 물었다. 저 의도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세존이 그것은 세상의 준비가 채워진 그림자만을 보고서 달리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하

## 세존양구(世尊良久)

이 에워하는 사람에 따라 예리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우둔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 도리를 말에 비유하여 준비는 마부가 꼭 하고 드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마부의 뜻을 헤아려 달려가지만 채찍이 떨어야만 달리는 말, 마침내 배까지 아픔을 가해야만 달리는 말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각각각색의 존재노릇이 있기 마련이다. 그 노릇은 자기 분수나 역할을 망각하고 주체에게 행동할 수 없다. 근기에 차등이 있기에 그 근기따라 공부해 가는 방법을 여러 방편으로 보고 있고 있는 미로 범인이 본교의 특수성이다.

崔玄覺

## 보리수

현대인은 하루 생활을 하는 데도 필연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무수히 밀려오는 업무량 가운데 그때 그때 선별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마려오고 생각과 생각이 대립적으로 떠오르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무수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나름대로 선택이 되는 과정을 거쳐 답도도 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만남이나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고가 기준을 이루고 있기 마련이다. 수행자는 후 이런 과정없이 쉽게 정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수행은 큰 일 가운데 하나는 풀릴듯이 밀려

## 보리수

오는 번외 망상의 거센 파도를 잠재워 잔잔한 호수로 만들거나 오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일상사 가운데에도 여러 저러한 것들이 쉽게 넘겨 버릴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나름대로 선별, 선택하여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일이 어찌 세

이 갖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게 하였습니다.'하고 의도는 세존에게 경배드리고 돌아갔다.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아들은 스승에게 물었다. 저 의도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세존이 그것은 세상의 준비가 채워진 그림자만을 보고서 달리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하

### 삼보컴퓨터의 역사가 한국 컴퓨터산업의 역사입니다.

# 한국 PC 기술의 新 모멘트

## 차세대형 「삼보386/40C」 탄생!

#### 차세대형 설계

- 확장과 Up-Grade, A/S가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 EMI(전자파)영향을 줄이는 신소재 ABC Plastic 케이스
- 신소재 만든 케이스는 전파를 차단하는 특수 코팅으로 인해 전자파를 막아줍니다.
- CRT를 최대로 적용한 Wide View 모니터 설계
- CRT 모니터를 최대한 활용, 최적의 설계로 같은 인치의 모니터보다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 확장 슬롯 기동률 100%를 실현한 음속 설계
- PC의 모든 기능은 마더보드에 통합, 5개의 슬롯이 모두 순수한 확장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ide Open" 설계로 확장카드의 편리한 장착
- 모니터가 있어도 열어서 열 수 있는 "Side Open" 설계로 편리한 확장카드 장착을 제공합니다.
- 현장 A/S를 위한 A/S-나사 없는 "Snap-in" 설계
- 나사없는 나사공으로 손쉽게 분해·결합할 수 있는 "Snap-in" 설계는 확장카드 A/S를 정말 쉽게 만듭니다.

#### 차세대형 성능

- 386PC의 만능성능 - 삼보기술력의 승리입니다.
- 등급 최고 40MHz CPU에 "Zero Wait"의 놀라운 가속력
- 국내 386DX 급용 최고 스피드의 CPU 탑재와 Shadow RAM, Page Interleaving, 64KB Cache, 메모리통제 "Zero Wait"의 경이적인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 가장 선명한 한글 글자해독 최상의 칼라 해상도 지원
- 원하는 PC용 확장카드의 문자 폰트와 칼라해독에서의 Video 기술용 동시 제공입니다. (한글 24×24포인트, 1,024×768×256Color, 수퍼 VGA 지원)
- 미래에 대비한 종합형 한글 지원
- 조형, 완성형 코드 등 시 지원, 국내 어떤 유형의 S/W도 활용됩니다.
- 최신 32Bit 70ns SIMM 메모리 채택
- 고속 60MHz 32Bit 70ns SIMM을 적용, 메인 메모리 구성에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 소프트웨어까지 차세대 개선
- 최신 S/W를 기본 제공, 전환이 편리해 줄 수 있는 정말 편리합니다.
- Windows 3.01 / 3.11 / V7 포크 / SVGA Driver / 10.5MB 0205.0

#### 대중화를 위한 가격혁신까지!

- CPU : 80386 DX/40MHz
- MEMORY : 4MB
- CACHE : 64KB
- HDD : 120MB/200MB
- 가격 : ₩ 2,500,000 / SV8 (모니터, VAT 별도)
- ₩ 2,850,000 / SW8 (모니터, VAT 별도)
- FD-205
- VIDEO : 한글 SUPER VGA
- KEY BOARD : 103KEY

#### 삼보컴퓨터

대표전화 : 390-2114  
고객상담실 : 390-2361-3







# 동해낙산학사 시설보완 시급하다



◇85년 완공이후 여름 수련장으로 사랑을 받았던 낙산학사는 올 '겨울개장'을 앞두고 취사장, 교직원내부 등 시설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진전리 443-6번지. 다소 생소해 보이는 이 주소는 동국인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85년 7월10일 개장한 '동해 낙산학사'(이하 수련장)의 위치이다.

12년동안 이곳 관리소장을 지낸 바 있는 김중환(69세)씨에 이어, 그의 아들 김광영(38세)씨가 3년째 관리하고 있는 낙산 수련장은 낙산해수욕장 송림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대지 1천2백69평, 건물 4백67평의 수련장은 △1층=관리인실, 식당, 매점, 주방, 학생5실, 교직원7실, 샤워실, 화장실 △2층=회의실(2백명수용), 학생5실, 교직원7실, 샤워실, 화장실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생은 1실 25명, 교직원은 5인 가족 기준 1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성수기(6·7·8월)에는 학생4실·교

직원4실을 경주캠퍼스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낙산학사 이용현황**

90년부터 92년 6월까지의 이용자수는 학생 1만4백94만명, 교직원 4백63명, 90년 학생 4천7백51명, 교직원 1백84명, 91년 학생 4천8백63명, 교직원 1백81명, 92년 6월까지 학생 8백80명, 교직원 41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표참조)

그리고 90년부터 92년 7월까지 유료이용자의 교직원 학생 비는 교직원 6백27명, 학생 5천4백9명으로 학생이용률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산학사 통계자료)

또 비성수기와 성수기의 학생이용을 비교해 보면 성수기(90~91) 8천6백14명, 비성수기 6백72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관계와 한 관계자는 "시설 성수기의 경우도 방학이 들어가는 6월

말과 피서철인 8월 한두주를 제외하면 이용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더라도 시설증축은 고려할 적 없다"라고 밝힌다. 그러나 시설현황을, 같은 낙산에 위치한 고대수련장과 비교해 보면 내부시설의 개보수공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시설문제**

고대수련장은 대지 2천16평으로 85년 12월 완공한 학생관 3백26평의 건물과 92년 6월에 완공한 5백54평의 교직원관, 그리고 야영을 위한 20평규모의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의 내부시설을 갖춘 건물들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의 수용능력을 다르게 한 것인데, 본교의 경우 학생실 10개 모두 25명을 수용할 수 있어 10명이내의 이용신청자는 직접 수련장으로 가게끔 유도한

다는 게 관계와 직원의 말이다.

그러나 고대수련장은 30명수용 1실, 15명수용 9실, 4명수용 6실등 수용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실을 갖고 있어 이용학생들의 선택폭을 넓게 하고 있다.

수용능력에 차이를 두게 하는 학생실개조계획에 대해 관계와 직원은 "소수인원의 사용을 허가했을 경우 관리상 문제가 많다"며 개조계획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학생실3개 교직원실 7개에 대해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시설 공사를 마친 본교의 경우 올해 동절기 이용현황을 파악한 후 난방시설확충공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고대수련장은 교직원관 28실 학생관 16실에 난방장치를 설치했다.

본교 수련장과 고대수련장의 시설비교는 터무니없다. 수련장에 M

·T를 온 한 학생은 "기숙사도 고대기숙사에 비해 쾌적한데 여기까지 그럭저럭 주눅을 느껴야 하나"라며 최소한의 복지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성수기에만 사용되는 임시공중전화의 영구설치, 야외 취사장의 보수, 교직원실의 실내전화·TV 등 설치 등이 시급하다.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취사장의 경우 성수기엔 줄을 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정도로 수도시설이 적다.

**학생들의 생활**

온여름방학중 낙산에서 휴가를 보낸 교직원의 공통된 불만은 "학생들이 밤새 술먹고 노래방 장을

▶T를 온 한 학생은 "기숙사도 고대기숙사에 비해 쾌적한데 여기까지 그럭저럭 주눅을 느껴야 하나"라며 최소한의 복지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성수기에만 사용되는 임시공중전화의 영구설치, 야외 취사장의 보수, 교직원실의 실내전화·TV 등 설치 등이 시급하다.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취사장의 경우 성수기엔 줄을 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정도로 수도시설이 적다.

**비성수기 이용활성화방안**

시설이 본교보다 나은 고대수련장의 경우도 6·7·8월 이외의 이용률은 현격히 떨어진다. 그러나 '야간' 시설보수와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면 시설활용가능할 일도 아니다. 더욱이 '낙산해수욕장 송림사'라는 지리적 위치는 고대수련장보다 좋은 환경임은 분명하다.

동문, 동국학원산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치, 그리고 비수기 때 이러한 외부인의 사용신청절차를 개선한다면 방법은 많지 않을

또 건물·시설유지비, 임시직원 월급 등을 고려한다면 비성수기의 이용활성화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낙산 겨울바다**

올해 처음으로 동절기에도 낙산 학사는 개장한다. 90·91년 통계(11월~3월)자료에 따르면 학생만 2백56명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의 사용은 없었다. 이기간의 학생이용률은 7월 이용률의 1/10이다.

그러나 취사장이 보온·확장되고 주변환경, 매점·식당운영이 개선된다면 '낙산 겨울바다'도 동국인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당장 '고대수련장처럼 증축하라'면 억지일 것이다. 이번 겨울의 '낙산송년'을 위해 기존시설 보완공사를 세심히 배려하고 특히 교직원실 내부시설을 보완한다면 이용이 적었던 교직원들은 '조용한 겨울휴양처'로 낙산학사를 첫번째로 꼽지 않을까.

(이병민 박선경 기자)

제5대 직원노조가 지난 6월 새롭게 구성된 노조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만나 최근의 사업현황을 들어본다.

**△이번 5대 노조의 사업은**  
=노조가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입니다. 부차적인 사업으로 어학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초 있을 예정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한편 사무직의 인사적체현상의 해소, 기능직의 인원충원 및 후생복지개선, 여직원의 공식명칭개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의 임기를 늘린 이유는

=이전까지 1년간의 임기는 쓸

하는 것인데 향후 학내조직체계의 공조체계가 점차적으로 이뤄지고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학기 동국발전위원회가 거론되면서 학내구성원들의 협력이 강조되며 이것이 학교당국·교수회·학생총대표가 정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계를 만들어 가야했습니다.

△현시기 학내에서 문제시되고있는 총동창회비 부활에 대한 생각은

=총동창회가 학교발전의 일주체로서 일어났을때 총동창회비는 자연스럽게 발생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총동창회의 모습은 학교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사립입니다. 총동창회는 분별 일부명망가들의 동창회가 아닌 전동국인의 동창회로 거듭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재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들을 시

◇동해낙산학사 이용현황 (단위: 학생 명, 교직원실)

연도	월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유료이용자
90	1	173	12	189	368	3560	311	39	99	5		4751	1,609
	2	52	8	103	18	1	2					184	
91	1	64	44	190	441	3657	282	133	38	14		4863	2,230
	2			1	32	83	43	22				181	
92	1	156	110	277	337							2,197	
	2			5	36								(7월까지)

※유료 사용자지는 낙산학사 통계자료 (자료제공:관재과)



**인터뷰**

5대 노조위원장  
장 운

## “행정전문성 요구 등 할일 많아”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가 근원적으로 안고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노조원의 자주적인 모임과 단결에 기반을 두고 이젠 학교발전의 일주체로 우뚝 설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가 학교 제반문제에 더 이상 방관적인 자세만을 취할 수 없음을 노조원 모두가 인식한 상태입니다.

또한 올 12월 대선시에는 노조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활동의 하나로 대학노조총연합회나 업종회의의 기본방침에 따라 학내의 교수회, 총학생회와 공동모세의 장을 통한 공동선거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

직히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전문성, 연속성을 감안해 심도있는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5대 노조의 집행부 구성은**

=총무부, 기획조사부, 교육출판부, 조직부, 영외지도부, 문화선진부, 후생복지부, 여성부등 8개부서로 나누고 각 부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학기 학내흐름은 어떻게**

=처칠장단 전면개편등 후속인사조치를 비롯, 교수회의 새출발 등 시기적으로 노조와 같이 출발

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또 '총동창회와 민주동맹회'가 조직통합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대외보는 총동창회와 민주동맹회에 대한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크게 잘못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동맹회 회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던 논리였습니다.

이런의 총동창회비 부활은 절차상의 과정에서 당연히 제후제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픈 말은**

=모든사람의 수행은 도덕성, 정의감에 토대를 둔 학생의 개개인이 중요합니다. (조인환 기자)

## 도서관 구조변경

개강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위치가 바뀐 열람실과 자료실을 찾아 다니느라 이용에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도서관(관장=홍영백·사학)은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내년 3월로 예정된 전산화 도입과 인력 및 공간 활용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구조변경공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존 1층 불교학 자료실이 열람실로 바뀌고 불교학 자료실은 4층에 있던 과제도서실과 함께 2층으로 재배치되었으며 2층에 있던 참고정간실은 3층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공사의 배경에 대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자료실과 열람실의 구분이 없어 계단, 복도등의 혼잡도가 높고 대출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인력·장비·공간의 낭비가 크며 앞으로 기록된 전산화도입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출창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 그간 폐가(서가를 폐쇄)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던 책배열이 개가(서가를 개방)식으로 대폭 수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 전산화 도입과 공간활용 합리화 위해 공간부족 등 근본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

아울러 분산된 인원의 집중화로 전산화 요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족한 서고를 늘릴 수 있어 효율적 관리에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재배치공사 뿐 아니라 개보수작업도 이루어졌는데 1층의 불교학 자료실과 신문계실 사이벽이 제거되고 출입문과 조명시설이 증설됐다.

또한 3층에는 서고방면에 이중출입문을 설치하고 1·3열람실 사이 벽 1칸 및 3열람실 철계계단을 제거했다.

이는 3층에 있던 1, 2, 3열람실을 없애고 4층의 4, 5, 6열람실과 함께 174석을 신설하고 4층에 집중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공사이다.

이로써 열람실은 1층 1백50석, 4층 5백28석 총 678석으로 40석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열람실은 기존 면적7백18평 1천7백14석에서 6백78평 1천6백96석으로 약간 줄었고 자료실은 6백평에서 6백43평으로 늘었다.

도서관 공간이 재배치된 것에 대해 장오영(무역2)은 "방종 공사

◇변경된 도서관 구조

층	시설안내	인원
4층	열람실(신설) (174명)	4, 5, 6열람실 (354명)
3층	참고정간실 (364명)	휴게실 (22명)
2층	불교학·과제도서실 (268명)	마이크로자료실 (33명) 휴게실
1층	열람실 (150명)	신문계실 목적실 휴게실 (55명)

때문에 3일간 4층 열람실만 개방해 불편했으나 대출도 편의는 2층, 정기간행열람은 3층으로 정해져 있어 전보다 이용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1층 열람실 배치와 관련해 도서관 직책때문에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도서관 사서과의 직원은 "이전의 3층이나, 지금의 1층이나 들리는 소리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장애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타학교에 비해 부족한 열람실, 장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이번공사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서관 직원이나 몇몇 교수들의 말처럼 대학의 심장부인 도서관의 확장이전은, 92년말 착공되는 동국발전의 용도확정과 함께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박수로 기자)

### 등록기간 연장

1992학년도 제2기분 학부 재학생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납부기간: 1992년 8월 24일(월)~8월31일(월)까지
2. 납부처

구분	납부처	대상 학생
캠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각지점	전산처리된 교사생 소지한 학생(전 현으로 간체처리된 교사 포함)
서울 캠퍼스	조흥은행 동국대 출점소 및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①정확금 수해자로서 정액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등록금 교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
경주 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②복합 및 개인학생

3. 기타

- ① 등록금 교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9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92. 8. 31(월)~9. 2(수)
2. 장 소: 각 대학 교과과·학과
3. 대 상: 전교생(2학기 복학생·재입학생은 위기간에 수강신청)
4. 유의사항

- ① 수강신청 임의변경(취소·추가)을 할수없음. (단, 전산처리 오류, 분반·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만 정정가능)
- ②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확인하기 바람.

**교무처장**

### 일반 휴학원 접수

92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원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접수기간: 92. 8. 31(월)~9. 4(금)
2. 접수장소: 학적과(본관3층)
3. 대상자

- ① '92. 8월말 현재 재학생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
4.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보호자 인서요)
5. 유의사항: 일반휴학기간은 1년간이며 연속휴학은 불가하고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자는 제적됨.

**교무처장**

### 1학년 특별시험 공고

92 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하니, 희망학생은 소정기간내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시험과목: 3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공동필수	21102	국어강독 및 작문2	2
공동필수	21104	영 어2	2
영역필수	41122	일반수학2	3

2. 응시자격 및 과목

가. 자 격: 92학년도 신입생 (92학년도 1학년 복학생 포함)

나. 과 목: 3과목 중 2과목 까지

3. 시험일시: 92. 8. 29(토) 9:00~11:50

\* 과목별 교사시간 추후 확정 공고함. (92. 8. 29(금) 오후2시)

4. 전형료: 과목당 (25,000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92. 8. 20일부터

나. 장 소: 교무과

6. 합격자 발표: 92. 9. 1(화)

**교무처장**

### 직원 채용

1. 채용부서 및 응모자격

가. 채용부서: 기능직 건축기사(미장)1명  
나. 응모자격

\* 1992. 9. 1이후 출생한 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전형방법: 면접 및 실기시험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다. 불교도 신증(본교 소정양식)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4. 접수기간: 92. 8. 26(수)~8. 31(월)
5. 접수처: 서울캠퍼스 총무과

**동국대학교**

### 졸업사진 재촬영

1. 복학생 및 사진미촬영자를 위해

\* 92. 9. 2~3(오전1시~오후4시)

· 불상 앞  
에서 졸업사진 재촬영을 실시합니다.

2. 4학년 각과 과대표는

\* 92. 9. 21~23일  
· 새한스튜디오  
에서 사진대조 및 이복학인을 마쳐주시기 바람.

※ 자세한 사항은 졸업위(구내:3614)로 문의 바람

**졸업준비위원회**

**박사학위**

◇이호근(철학박사)=상카라의 假期 研究 ▲55년생 ▲본교 인도철학과 ▲90년~현재 강릉대학교 강사  
◇황중연(문학박사)=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의 문학의 진통주의 연구 ▲60년생 ▲본교 국문과 ▲91년9월~현재 본교 국문과, 국교과 강사  
◇송희복(문학박사)=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57년생 ▲본교 국문과 ▲90년~91년1월 본교 한국문학연구소 조교  
◇정영우(문학박사)=이태준 소설 연구 ▲56년생 ▲본교 국문과  
◇정의홍(문학박사)=정지용시의 연구 ▲44년생 ▲본교 국문과 ▲91년~현재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조교  
◇구사희(문학박사)=한국문학사 연구 ▲57년생 ▲본교 국문과 ▲90년~현재 전주우석대 강사  
◇최영자(문학박사)=W.B. Yeats시와 역사적 ▲36년생 ▲한국대 영어과 ▲87년~92년 한국대 부교수  
◇정병모(문학박사)=조선시대 후반기 풍속화의 연구 ▲59년생 ▲시립대 건축학과 ▲91년~현재 경인대 회화과, 동아대 고고미술사 시간강사  
◇임연기(교육학박사)=교과과정의 변화와 ▲52년생 ▲공주사대 교육학과 ▲91년~92년2월 본교 교육대학원 시



◇이호근 ◇황중연 ◇송희복 ◇장영우 ◇정의홍 ◇구사희  
◇최영자 ◇정병모 ◇임연기 ◇김인수 ◇김선정 ◇전재경  
◇주원덕 ◇문원식 ◇서규하 ◇박병식 ◇곽무섭 ◇이정모  
◇전찬익 ◇김고원 ◇이후석 ◇정찬성 ◇정관희  
◇백수기 ◇윤호군 ◇이민순 ◇이철우 ◇노정미 ◇박찬부 ◇김진태

년 경북대 ▲80년~현재 경성대 부교수  
◇이정모(경영학박사)=직접 투자와 무역의 상호연계성 분석-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중심으로 ▲55년생 ▲83년 한남대 무역학과 ▲88년~91년 한남대 강사  
◇전찬익(경제학박사)=감자 생산의 잠재력과 규모경제성 분석 ▲56년생 ▲82년 본교 농업경제학과 ▲84년~현재 농업중앙회 조부  
◇김교원(문학박사)=대전시 중소기업의 입지형태에 관한 연구 ▲43년생 ▲70년 공주사대 지리학과 ▲89년~현재 목원대학교사  
◇이후석(문학박사)=한국의 산수관람취미에 관한 연구-법주사, 수덕사, 내장사를 사례로 ▲56년생 ▲78년 본교 지리교육과 ▲90년~현재 광주대 전임강사  
◇정찬성(이학박사)=DLTS 법에 의한 III-V 합합 반도체 내 깊은 준위의 거동 ▲57년생 ▲79년 본교 물리학과 ▲87년~현재 청주대, 본교 물리학과 강사  
◇정관희(이학박사)=은이 광-도핑된 비정질(As<sub>2</sub>Se<sub>3</sub>) 100-xAgx 박막의 전기 및 광학적 특성 ▲55년생 ▲77년 본교 물리학과 ▲90년~현재 카톨릭대 의학부 물리학과 전임강사  
◇정관희(이학박사)=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인구확산 통계모형에 관한 연구-국립연금 재정수지 추계 ▲48년생 ▲72년 본교 통계학과 ▲80년~현재 경기대 전산과 교수  
◇백수기(이학박사)=리비전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조작방식 질의시스템에 관한 연구 ▲44년생 ▲72년 연세대 토목과 ▲80년~현재 경기대 교수  
◇윤호군(이학박사)=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비밀에 관한 연구 ▲42년생 ▲68년 한양대 공업경영학과 ▲84년~현재 목원대 컴퓨터학과 부교수  
◇이민순(농학박사)=피나무, 참나무 천연집단의 葉面 變異 및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 ▲58년생 ▲80년 본교 인화과 ▲91년~현재 중부사회산업학교 임산학과 전임강사  
◇이철우(공학박사)=로산 凝固 酵素의 생산과 효소 특성에 관한 연구 ▲59년생 ▲83년 본교 식품공학과 ▲92년~현재 서울보건전문대 식품가공학과 강사  
◇노정미(가정학박사)=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최뜨기, 화살나무, 가래나무 및 일엽초의 효능에 관한 연구 ▲59년생 ▲84년 본교 가정교육과 ▲90년~91년 본교 가정교육과 강사  
◇박찬부(가정학박사)=한국 현대服飾 문화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41년생 ▲63년 서울대 가정학과 ▲83년~현재 인하대 의류학과 교수  
◇김진태(한의학박사)=正氣散 散 加味正氣散이 血虛症과 高熱症에 미치는 영향 ▲50년생 ▲80년 경희대 한의학과 ▲90년~현재 한림한방병원 원장

**1991학년도 박사·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장성순=麗水 鮮肉의 전체 개역과 그에 따른 사원권의 존재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김진태=화인경과 기신론의 일일 및 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이기운=雲嶺의 法華經 연구-遊經 別讀을 중심으로 ▲김은희=天台智顛의 淨土觀 연구-常行三昧를 중심으로 ▲김봉래=法稱의 他心存在證(Samantāntrasiddhi) ▲조현설=근대 대중교양운동의 문학사상 연구 ▲정세영=金來成소설론 ▲박상관=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김정진=불교가사의 流行 연구 ▲한홍수=세익스피어의 낭만극에 나타난 사랑·Identity의 변용과 재성 ▲김광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비경=解嚴의 社會情勢-동양화부를 중심으로 ▲정해경=佛敎으로서의 佛足跡 연구 ▲김호섭=소비에트 혁명주의의 역사와 프롤레타리아-1919~1938의 작품 주제와 테크닉 연구 ▲고성민=관객의 능동성 연구-영화관객의 정신분석을 통하여 ▲허경화=양자비선대 놀이의 해석성이 보여준 사회적 개진에 관한 고찰 ▲예영주=한국 근대 회화의 성격 고찰 ▲이희호=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최영주=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이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양해석=회사합병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이원국=통학현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정기환=공업과 중심 경제성장이 농촌빈곤에 미친 영향-1965~90년간의 한국의 사례 연구 ▲김종선=6.29이후 생산성 변화 분석-鎭 鎭業의 勞組

효과를 중심으로 ▲송재숙=교육의 투자효과 분석 ▲김중선=한국의 家計貯蓄率의 추정-純貯蓄率과 耐久財를 準耐久財를 포함하여 ▲김태신=의한 신술거래의 최적 해지비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 ▲김승호=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황심수=우리나라 중소기업 승용차 구매자 태도에 관한 실증 연구-多屬性 태도모델을 중심으로 ▲임성환=주당당업이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전환사채발행의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김범수=법인자기감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신현중=화강암 산지의 하천 지형 연구-도봉산-수락산 지역을 사례로 ▲김기명=ON THE CENTRAL LIMIT THEOREM IN BANACH SPACES ▲송연재=정전장치에서 GaAs/Al<sub>0.3</sub>Ga<sub>0.7</sub>As 양자 우물 of the 流行 연구 ▲김동현=Synthesis of N-p-nitrophenyl-poly(m-phenylene isophthalamide) ▲김영훈=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ly(r-benzyl L-glutamate)-Poly(ethylene oxide)-Lactoseolactone Block Copolymer Microspheres ▲김중훈=문헌분리기에 의한 한글 문헌 자동색인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고광이=A study of Multivariate Multi-sample Linear Signed Rank tests for Location-scale Alternative ▲이예경=Bounded-Leverage 殘差 회귀추정에 관한 연구 ▲연주홍=C<sup>+</sup>인자의 클래스에 대한 정보 추측과 브라우닝을 위한 도구 ▲박종수=주거건축 지형의 기본형태 ▲김영희=건축물 용도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이재국=건축물 방화규제에 관한 연구 ▲이현상=국내 인텔리전트 빌딩의 IB와 수준에 관한 사례 연구-건축 실비를 중심으로 ▲박종범=당류, Cysteine, PH 및 저장온도가 Ascorbic acid를 함유한 Ascorbic acid 안료에 미치는 영향

▲조세주=플라스미드PUC19에 의한 대장균 JM101 및 HB101의 고효율 형질전환 ▲최영순=한국의 보살服飾에 관한 연구-6~8세기 보살상과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문원식=佛敎藥業의 고찰 및 高脂血症에 미치는 영향 ▲김영우=腹中, 腹穴의 芟生體反應이 貧血에 미치는 영향 ▲송우섭=葛根水에 Ethanol투여로 誘發된 肝損傷에 미치는 영향 ▲박은숙=紅花水에 Endotoxin에 의한 白鼠血中 糖原에 미치는 영향 ▲유병연=劑絡療法이 Microcrystalline Sodium Urate를 투여한 關節炎에 미치는 영향 ▲김동윤=胃腸과 中脫穴의 蓄水에 대한 연구 ▲구자익=고르바초프시대 소련의 對韓政策 변화에 관한 연구 ▲박상호=한국 학군사관후보생 제도에 관한 연구 ▲김계수=한국의 무기체계획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철=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동태=국가발전과 한국군 육 및 경제발전 지능을 중심으로 ▲박문순=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황기복=북한의 핵미사일 관계개선과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김광수=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정책에 관한 연구 ▲박동일=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한 고찰-냉전종식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김태진=남북한의 핵UN정착에 관한 비교연구 ▲이민준=교통신공예에 대한 연구-교통신공예의 의의 ▲유영은=항공기 복귀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KAL-858기 및 "팬임" 103편 사고 중심으로 ▲김재국=도시의 하천오염 실태와 수질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근=한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태=지하철공사상의 안전사고발생요인

과 대책에 관한 연구 ▲오정희=유공의 비약류약품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이승주=한국도로교통안전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부식=1980년대 한국영화의 대중화 고찰-사상 이론투쟁을 중심으로 ▲이상기=서울특별시 소방용수 시설에 관한 연구 ▲김갑순=소방구급행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신희=한국의 노인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이재희=국민연금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노경숙=신용도의 건강신념과 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김화경=우리나라 유아복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주요백화점의 이용실태 분석을 중심으로-흥인명=우리나라 백화점의 통신판매 활용에 관한 연구 ▲정영환=중소제조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찬주=축산인 회계에 관한 연구-낙농사업과 양돈사업을 중심으로 ▲이종열=기업도산의 실태와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희재=보험시장개방화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한 고찰-우리나라 損保産業을 중심으로 ▲이윤희=우리나라 해외인력 고용실태에 관한 고찰-중국교포 인력을 중심으로 ▲김인수=건설부문 개혁자율화와 해외건설출진에 관한 연구 ▲김광희=미국인 투자관리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김태=DB 구축에 관한 연구-도덕성을 중심으로 ▲조덕환=조각에 있어서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고찰 ▲유창현=작품소속-신체를 위한 존재방식 ▲한정평=인체조각의 조형성과 미술해부학에 대한 고찰 ▲유영환=로버트 라우센버그의 Combine Painting에 관한 고찰-회화와 조각의 개념 확장 ▲최영성=대학기숙사의 단위실 실태·SIGNAL에 관한 연구 ▲이진미=李仁老의 문학세계(파란집을 중심으로) ▲김원희=柳夢漁의 문학세계 ▲박병연=鄭維憲의 학문과 시세계 ▲문기택=지역주민의 스포츠활동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창국=실리적 연을 통한 교수 학습과정의 기계운동기 능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근재=사회 경제적 지위의 스포츠 참여의 성향 ▲최희석=스포츠 연구의 체계에 관한 연구-Rousseau와 Pestalozzi를 중심으로 ▲홍정은=상업적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의식작용 고찰 ▲박재원=사실시조와 민요의 유사모형성의 고찰 ▲김경남=자서전으로서의 '한동' 연구 ▲송철수=朴木月시 연구-경상도의 가랑잎을 중심으로 ▲하준열=영천 지역의 음문론적 연구 ▲김효남=관내정사 연구-호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석관=국외보조용인 연구 ▲이용미=거주지 선호유형 분석-서울을 중심으로 ▲최병문=서울 강동지역 및 그 주변의 공업입지 ▲김희성=개화기의 대한국의 교육 계층활동에 대한 연구 ▲김미경=역사교육의 학습능력 향상 실태 연구-학술 교육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권유경=文壇大如의 興佛精神이 불교계에 미친 영향 ▲지진진=소집단 학습이 수학적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박승익=매개변수에 의한 도형의 고찰 ▲김영준=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찰 ▲손영진=老자의 도에 관한 연구-도덕성을 중심으로 ▲조덕환=조각에 있어서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고찰 ▲유창현=작품소속-신체를 위한 존재방식 ▲한정평=인체조각의 조형성과 미술해부학에 대한 고찰 ▲유영환=로버트 라우센버그의 Combine Painting에 관한 고찰-회화와 조각의 개념 확장 ▲최영성=대학기숙사의 단위실 실태·SIGNAL에 관한 연구 ▲이진미=李仁老의 문학세계(파란집을 중심으로) ▲김원희=柳夢漁의 문학세계 ▲박병연=鄭維憲의 학문과 시세계 ▲문기택=지역주민의 스포츠활동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창국=실리적 연을 통한 교수 학습과정의 기계운동기 능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근재=사회 경제적 지위의 스포츠 참여의 성향 ▲최희석=스포츠 연구의 체계에 관한 연구-Rousseau와 Pestalozzi를 중심으로 ▲홍정은=상업적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CLOZE TEST의 연구 ▲허선구=영어 독해문제의 논리관계 구조에 관한 연구-대학 수험능력 실험평가에 나타난 독해 유형을 중심으로 ▲이철우=현대 영어 교수법의 관공과 흐름 ▲이철희=Misssbauer 분광법에 의한 프로그래밍의 Fe-이온에 관한 연구 ▲이정민=중성자를 조사시킨 GaAs의 TSC 측정 이주말=드소화인 시스템에서 디스크 액세스 특성 ▲이일=암호화 기법을 응용한 화일 보호에 관한 연구

(이상 31명)

**(정보산업대학원)**  
◇정병기=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CI에 관한 연구 ▲정영익=도시상업지역의 공간과격화 및 발전 방안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김덕기=특수공공성에 관한 고찰-한국의 토지공공성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백대승=농촌공공이 지역농촌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고찰-경주군 농촌지구 주변지역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경호=도시보행자 전용도로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울산시를 중심으로 ▲김광석=한국교육 자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선진국의 교육자치제도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손승민=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이재익=공업도시 환경오염 방치대책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환경보전제 신설을 중심으로 ▲최영화=지방도시 상수도사업 운영의 효율화 방안-경북지역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서진기=신촌의 효율적인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 178명)

**2면에 사실이 없어졌다?!**

전통을 고집하던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50년4월15일 창간이래 2면 좌측상단을 고집했던 사실이 8월26일자부터 3면 우측상단으로 옮겨집니다.

아울러 2면 여론매체면이 강화되고 3면은 기존 학술면에서 시사논설·학술면으로 성격이 변합니다.

이러한 지면재배치는 먼저 사실이 여론면과 성격이 맞지 않고 여론면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면서 효율적인 지면배치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강화된 여론면에서는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동국인임을 뜨겁게 느끼며 사는 오늘의 동문들의 모습을 매우 절할 수 있으며 지면이때때로 논거의 침범이 언론매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매체비평으로 언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3면은 그주 사회쟁점에 대해 전문가가 분석하는 '사사논단'과 학내의 학술면, 심층·해설기사가 실립니다.

앞으로도 강화된 여론면에 대한 독자의 애정 어린 관심을 바랍니다.

**지면재배치 안내**

면	기사	주요내용
2면	여론매체	동문칼럼 열린 글터 말하고 싶었습니다 매체비평/대자보 분석 지난 동대신문을 읽고
	3면	사설 만평 사사논단 학술·해설기사

**東大新聞社**

92  
법민족  
대회

# 유례없는 정권탄압속 강행

## 법청학련 건설... 통일운동 적극매진

법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공동 본부장=강희남 목사)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2 법민족대회를 정권의 사상 유례없는 탄압속에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대와 중앙대에서 개최했다.

지난 10일 새벽 3시45분경 경찰은 30여대 3천5백여 병력을 투입, 대회 개최지인 중앙대와 숭실대를 기습 침탈해 대개관 전담회장을 비롯한 전담회 중앙위원 등 대회관련학생 70여명을 강제연행했다.

이날 침탈과정에서 압수돼 버려진 경찰의 무차별 폭행과 폭행으로 범죄행위, 사살물기 심하게 파손되고 연행자의 부상이 속출했다.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통일선봉대는 지난 3일 대전 한남대에서 동선대 결단식을 갖고 각각 진주와 목포를 시작으로 서울 중앙대에 이르는 대장정을 이뤄냈다.

또한 경찰의 강경탄압으로 인해 중앙대 진입이 어려워져 13일 서울대에서 법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가 개막선언을 하면서 대회강행 방침을 천명한다. 14일 본교등 시내 7개대학에 지역총련별로 분산돼 있던 2만여명이 서울대 진입이 성공, '92법민족대회 개막식 및 통일선봉대 환영대회'를 시작으로 본대회를 강행했다.

다음날(15일) 오후 9시경 남·북·해의 청년학생 연합체인 '조국통일 법민족청년학생연합

(이하 법청학련)의 결성식이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김영하(중앙대 총학생회장)전대협 조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법청학련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사주·평화·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강령으로 규정 △연방제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실현 △비핵군축실현 등을 위해 남·북·해의 청년학생들은 법청학련의 정치이념 통일운동에 적극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법청학련 강령10조와 규약 7장21조를 천명, 제1기 법청학련을 공식출발 시켰다. 하지만 이번 7, 8월 조국통일운동과 법민족대회가 법청학련 출범 성과와 통일운동의 대추화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못해 향후 대통령선거에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정권의 반동일성을 어떻게 부각시켜나가는가라는 과제를 안게됐다.

한편 전대협은 지난 16일 동승동 대학로에서 법민족대회보고 및 전대협 법청학련 사수를 위한 서울 시민 학생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가두선전운동을 힘있게 전개했다. 이후 대부분

의 대학생들은 중앙대에 집결, 통일선봉대 해산시점 패배를 서총련과 용성총련, 수대협 차원으로 치루고 92법민족대회 모든 일정을 끝마쳤다.

### 농산물 제값받기 고추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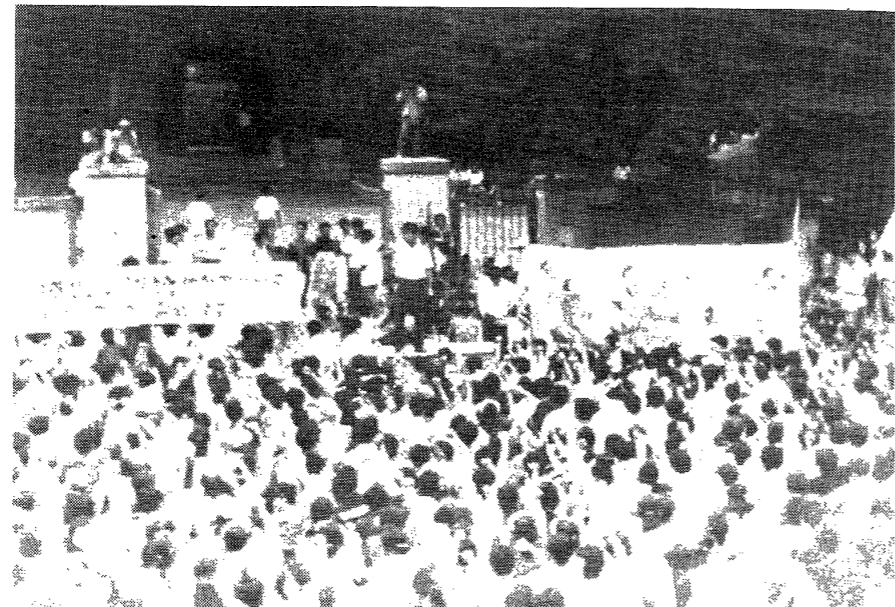
#### 참기름·들기름도 판매

제24대 농과대학생회(회장=라형진·농학4)는 오는 9월2일

부터 8일까지 혜화관 앞 통일광장에서 '92 농민사랑 농산물 제값받기 고추판매' 행사를 벌인다.

농산물 직거래로 농산물의 건전유통구조조성과 더불어 농학연대의 강화를 위한 이번 행사는 총화 농민들과 전국농민회 농민들과 함께 추진한 것이다.

8일간의 행사기간동안 농대 학생회와 전국농민회는 현시기 농산물의 실태, 유통구조의



조국통일운동을 일방시민들의 요구로 대중화하기 위한 학생시민한마당이 지난 16일 대학로에서 열렸다.

### 故 최범훈교수·최학선동문 도서기증

#### 단행본 및 정간물·각 7천권, 5백권

고 최범훈(국문학)교수와 고 최학선(전 본교 교수)동문의 유가족은 지난 7월1일 고인의 소장서적 각각 7천여권, 5백여권을 본교 중앙도서관(관장=홍영택·사학)에 기증했다.

최교수는 1976년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모범출판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을만큼 도서에장기로 인연이 소장서적중 '국사개설'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7천여권을 기증했다.

한편 최학선은 '신라가요연구'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5백여권을 기증했다.

중앙도서관측은 고인들의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유지를 받들어 본교발전에 유

용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레슬링부 단체우승

본교 레슬링부(감독=메기엘)는 지난 22일 양정보 세계체제기법 제17회 KES배 전국 아마추어레슬링대회에 8명이 출전해 자유형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57kg급 이태길(체교3)과 82kg급 최동자(체교3)군이 자유형 각계급 우승을 차지한 본교는 총36.5점으로, 35명이 출전하여 31점을 얻은 한국체대를 누르고 정상상을 차지했다. 또한 82kg급 최동자군이 최

우수선수상, 배기열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레슬링부 소속으로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출전해 4위에 입상했던 김진학(체교1)

군은 지난 24일 정오 세종회관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체육단련비등의 격려금 1백만원을 전달받았다.

### 중앙도서관 내부구조 변경

#### 공간활용·인력절감 효율위해

도서관(관장=홍영택·사학)은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내부구조변경 재배치 공사를 실시했다.

(관원기사 5면)

업무기능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이번 공사에서는 그동안 분산됐던 자료실, 정간실을 한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1층 불교학자자료실과 4층의 과제도서실을 2층에 집중하고 2층 참고정간실을 확장해 3층으로 옮겼다.

이처럼 자료실, 정간실을 2, 3층으로 이동한 것은 대출장구

의 일원화를 꾀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전산시스템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인력의 집중과로 인력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내부공사에 대해 도서관 실무 관계자는 "학생들의 대출이용이 용이해지며 개가제(서고의 개방)전환으로 많은 책의 열람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주민 호응 커

#### 경주 하계의료 봉사

한의학과 학생회(회장=김봉수·한외학2)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김릉군민대에서 한의학과 6개 의료봉사 동아리와 공동으로 연합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교수와 학생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는 △음식물 한의학과 정립과 학문적인 발전 △실용성을 통한 주민들의 의료실태조사 등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봉사활동이 실시된 각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과대 학생회(회장=

### 벤츠스러운 생활

○·깨끗하게 정돈된 불상 앞 제단위에 연기를 뿜어내는 등산불이 있다는데, 요즘 개장을 한뒤로 교정된 학우들이 부쩍 늘어나자 방향중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야기인즉 불상앞에 있는 제단위에 기부좌를 틀고앉아 향로를 재떨이 삼아 마셨다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이라고.

이를 보고 아침마다 불상 앞 담배꽂이를 청소하는 불교학과 한 학우가 "부처님의 인력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 주차 사설

○·주차사설이 번번찮은 은방울 한의대생이 '주차사설'을 '주차사설'로 잘못 썼는데, 이가 많다는데, 학생들에게

### 인질

○·은방울 학생회관내 재판기 이용시 사용되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권력회로 전전만 먹고는 생각을 안하는 재판기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등등을 낚는 모험(?)을 한다거나 그

### 참는자에게 복이...

○·은방울 학생회관내 재판기 이용시 사용되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권력회로 전전만 먹고는 생각을 안하는 재판기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등등을 낚는 모험(?)을 한다거나 그

### 민자 외곽조직 '한맥회' - 통일준비 고군분투(?)

자의 외곽조직 '한맥회'가 대선을 맞아 '통일을 준비하란 공터는 분명 주자당적 구역을 지만 언제부턴가 유야무야 밝히는 시간까지 게시판을 잠정한 차를 보인 방편으로 아닌 학생·교직원들의 소행임을 지적할 수 있다고.

이에 한의대 한 직원 왈,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몸매치는 미비한 주차사설과 함께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 신속한 정보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게시판

신속한 정보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게시판은 공터는 분명 주자당적 구역을 지만 언제부턴가 유야무야 밝히는 시간까지 게시판을 잠정한 차를 보인 방편으로 아닌 학생·교직원들의 소행임을 지적할 수 있다고.

### 이경윤 (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이경윤 (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는 '85년 영남대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7년 영남대대학원 신경과 석사과정, '90년 원곡수도 통합병원 신경과

### 통불협, 조국통일 기원 법회

#### '108방북단' 파견 추진 당분간 유보돼

'남북불교 자우교류의 성사'와 조국통일을 위한 기원법회'가 지난 24일 정각원에서 민족자주 통일불교운동협의회(의장=지선·이하 통불협) 주최로 열렸다.

통불협은 불교계 인사 1백80명으로 구성된 '108방북단'을 꾸려 북한 불교계와 교류사업 추진을 시도했으나 통일원의 북한주민 접촉불허방침에 의해 실현이 어렵게 되자 이에 반발하고 불교계와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속성취를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통불협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 △조국통일안법 및 제헌 군사적 대결구조

체제 △남북 불교자우교류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천명 했다.

한편 통불협이 지난달 7월27일 통일원에 접수한 '방북신청서'와 관련, 통일원은 지난 17일 북한이 '남북 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에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관계로 민간인들의 방북추진 자체를 요한다고 밝혔다. 또 '방북단'의 규모가 대규모인바 실무적 절차를 감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방북단 구성원에 범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적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없이 '대북방구 단절화'라는 정부측의 입장만 고집했다. 이에 대해 통불협은 다시 공

개질의서를 통일원에 보내는 한편, 수정제안을 통해 실무자 3인을 사전답사 형식으로 방북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 다음 '108방북단'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108방북단'의 파견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또한 의과대 학생회(회장=

### 2학기 신규 교수 채용

#### 서울캠퍼스 9명 경주캠퍼스 11명

'92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채용이 지난 17일 1백16회 제24차 인사채용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9월1일자로 발령된다.

이번 신규교수가 채용된 과는 지난학기 신설된 기계공학과를 비롯해 13개과 20명으로 그중 스기사와 이즈미(일어일문)교수와 맹동욱(연극영화학)교수는 외국인 초빙교수다.

이번 신규교수채용은 각 캠퍼스별로 살펴보면 서울캠퍼스에서는 스기사와 이즈미(일어일문)교수, 신동혁(물리학)교수, 황대성(물리학)교수, 이윤근(경찰행정학)교수, 원지선(전자공학)교수, 이송주(식품공학)교수, 박부연(교육학)교수, 맹동

욱(연극영화학)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경주캠퍼스에는 이봉춘(불교학)교수, 김복순(국사학)교수, 장정제(철학)교수, 이연환(기초과정)교수 등이 신규채용됐다.

또한 의과대학 의학과 임상교수로 김용철교수, 윤혜원교수, 이현경교수, 김상범교수, 성일오교수, 어정윤교수, 김진아교수가 초빙됐다.

이윤근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81년 본교 경희대 학과 졸업

'81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

83년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졸업

'91년 Cornell University, School of Applied Engineering Physics 박사 과정 이수

91년 Research Associates, Applied Superconductivity Center, University of Wisconsin

황대성 (물리학과 대우교수)

'78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87년 미국 버클리대 물리학과 대학원 졸업(임지락 이론전공, 박사학위)

원지선 (전자공학과 조교수)

'82년 고려대 전자공학과 졸업

'87년 미국 The University of Iowa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90년 연-계명대 기계설계학과 조교수

이송주 (식품공학과 조교수)

'82년 서울대 식품과 졸업

'88년 Department of food Engineering,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ss, usa 석사학위

'90년 동대학 박사학위 취득

박부연 (교육학과 조교수)

'75년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81년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88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92년 고려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강사

장정제 (인문대 철학과 전임강사)

'81년 본교 문리학과 철학과 졸업

'84년 본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88년 본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이현경 (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4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의과대 수료

'88년 서울대병원 진단방사선과 전공의(테지먼트)로 재직

'91년 서울대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이수

김상범 (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4년 중대 의과대 졸업

'90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위촉(의학석사)

이경윤 (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5년 영남대 의과대학원 신경과 석사과정

'90년 원곡수도 통합병원 신경과

김진아 (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5년 서울대 의과대 졸업(의과)

'91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의학과, 정신과학 전공)

'91년 한국신경정신과 의회(의학과, 정신과학전공)

이연환 (경주캠퍼스 기초과정 전임강사)

'80년 본교 문리과학 물리학과 졸업

'90년 본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

'87년 경주캠퍼스 자연과학 대학강사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92년 영남대 의과대 미생물학 석사과정

